

고은 불교 대하소설

하나 둘 불어나다

선장 배만득은 언젠가 객주인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 송도 쪽의 인삼 화물에 사나운 물결이 덮쳐서 그 화물 일부가 폭시 젖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일도 있었는가 하면 작은 액수지만 몇번의 빛도 있었던 것이다.

인답이 객주인에게 갔으랴 했던 2백냥도 그가 진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번의 일터를 알아보는 것도 이 객주인보다 다른 막간꾼들이 모이는 나루터 노적화물 거간꾼에게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용케 만난 것은 부처님 덕분인 것 같구려"라고 바다 위의 안전 때문에 이따금 예상장 하구 언저리의 반야사에 시주를 해온 신도답게 인답을 반겼다.

놀라운 것은 그가 우녀를 쓴 값으로 사들였을 때 언어나 저어나하고 말할로 다루던 것과는 달리 어느새 우녀의 어떤 기품때문인지 사뭇 정중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우녀가 함께 가지고한 말에 도대체 어디를 가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지도 않았던 것인가.

"어때? 가겠어? 이 코 베어가는 포구에서 쳐박히기보다 어디 가서 신선이나 되어보지 않겠어?"

그의 한 패거리 나이 지긋한 곰보 사공더러 의향을 묻는 것이었다.

"이 몸이야 배선장 공무년에 달린 방울 팔자인데..."라고 간단히 순응하는 것이었다.

"참 좋습니다!"라고 우녀가 국밥집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정작 인답은 이렇게 식구가 불어나는 무욕도 생활의 앞

"갑시다"라고 말하는 우녀야말로 그녀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인답 배만득 그리고 사공 곰보가 그 말대로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머리에 무명천을 둘러싼 우행자는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었다.

재물포 바깥나루(외포)에서 돛 한 폭 짜리 가축 실어가는 배에 선개를 내고 아랫배 포구로 가는 일을 배만득이 쉽게 해결하였다.

"복은 선장도 선장은 선장입니다"라고 인답이 애써 우스개소리를 냈다.

그런 인답으로서는 그런 배만득이나 곰보가 거의 일지무식인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아무리 불입문자(不立文字)의 집안 일지라도 문자를 다소 알아야 입(立)이든 불입(不立)이든 공부로 삼을 것이 아닌가 하고 그 점을 좀 답답하게 여겼다.

임춘의 <서하문집>이나 그밖의 여러 송대(宋代) 계승(繼承)들을 펼치는 산중종류는 이제 그들이 만드는 환경에서는 의물박이로 될 터였다. 나중에 박히는 맛이 먼저 박힌 맛을 밀어내는 셈이었던가.

바다 위의 여행이 한결 고단하지 않았다. 때마침 파도도 잠정하였다. 이따금 빼격대다가 마는 키 쪽의 마찰을 막는 저기압의 바다 위는 그 밀의 고기들과는 상관없이 자극히 적막하였다.

밤에는 사인 달이 늦게 떠서 밤새도록 하얀 달빛을 내려보내고 있었다.

배에 탄 가축들도 배가 떠날 때와 달리 어느 놈 하나 꿀꿀거리는 일을 그만 두고 있었다. 짐승이 그들의 미래와 현재를 사람보다 더 본능적으로 잘 알고



수미산

"네에" 그녀는 눈물이 젖은 눈을 가늘게 하며 맑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이 산소에 오셨습니까?" "네에 바깥분이 홀지에 떠나서서..."

다. 그녀의 입에서 한 마디가 나왔다. "글쎄요, 어쩔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역에서는 견딜만하지 못한 처지이고... 워낙 서방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시어머



그림 · 조항숙

"하필 이곳 바다 바람이 센 곳에 산소를 쓰셨습니까?" "청나라에 건너가시는 것이 꿈이었습니 다. 그래서 시어머님께서 아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고 이곳에 무덤을 쓰도록 하셔서..."

"그럼 농사짓는 분은 아니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물이 허약하여 집안에서 8괘역점(八卦易占)을 익혀 가근방 사람들의 산대를 놀리며 성년에 이르렀습니 다"

"앞으로 언니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입니까?"라고 우녀가 여자들끼리만 내밀한 교감으로 물었다.

아니 어떤 대답이 나오기 전에 말을 이었다. 마치 재빠른 솜씨로 화살 두대를 거부 날리는 것처럼.

그녀는 이런 우녀의 당돌하기까지 한 질문에 한동안 망연히 할 수 밖에 없었

남게서 날이날마다 소리치시니... 천정 오라비가 참다 참다 못하여 데려가려는 것을 아직 머뭇거리며 처지입니다"

보아하니 그녀는 단정한 소복차림과는 달리 입술의 핏기운이 없고 눈이 움푹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하루에 한끼 누른밥 천신 밖에 못하는 처지입니다"

"시어머니 강박 때문이겠지요. 언니? 우리와 함께 무욕도로 건너갑시다"

"..." 그녀는 좀 낯선 표정으로 멀리 바다에 떠 있는 무욕도를 바라보았다.

"저기 가... 나하고 세상 있어버리는 공부나 실컷 합시다. ... 실은 언니를 강 원도 어디로 데려갈 남자가 있는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마나!"라고 소스라치게 놀

랐다. 핏기운 하나 없는 핏색한 얼굴에 부끄러움이 즉시 역력하게 드러났다.

"거기 가도 언니는 복될 수 없습니다. 언니는 천상 세상을 버리는 공부에 딱 맞으니까요!"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우녀의 말은 그 말에서 도망갈 수 없게 단단히 그 풀을 치고 있었다.

갔다. 연장 하나 없으므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고사목 따위를 모아보았다. 그것 들을 낚은 낙배와 함께 뽕나무로 묶어서 괴상한 때배를 만들었다. 노와 사대는 아직 쓸만해서 그것으로 배만득은 새로 선장이 된 셈이었다. 더구나 곰보사공의 노젓는 솜씨는 인답이 따라갈 수 없었다.

“저 무욕도에서는 세상의 어느곳도 마음속으로 자유자재 날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다섯사람은 그러저러 무욕도에 건너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배는 무욕도의 해상을 배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녀는 섬에 건너오기에 앞서 남정네들이 술밭으로 들어간 사이 과부의 남편 무덤이 있는 부근에 그녀가 신은 미꾸리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그곳은 서너길의 바람이 저 있는 곳이어서 누가 보면 그 아래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꾸매질만 하였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답을 불렀다. "언니 범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인답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짓고 이름을 고치려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尚)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움켜잡은 불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짐작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중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답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담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 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

거기에 인답과 배만득 곰보가 있고 기왕의 아랫쪽 갈대담자는 두 여자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새벽 예불과 아침 낮 공양은 암자에 모여서 하기로 되었다. 배만득의 이름은 만화(萬化), 곰보의 이름은 우선 남(南) 처사로 지어졌다.

이제 네 사람이 되었으니

우녀와의 호젓한

수행의 매혹이 깨어질 수 밖에...

날에 대해서 슬며시 걱정되지 않는 라도 아니었다. 이제까지 인답 혼자서 살아오다가 거기에 우녀가 더해졌던 것이다.

그것만으로 바랄 나위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 네사람이 되었으니 우선 넷이라는 식구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는 우녀와의 호젓한 수행의 매혹이 깨어질 수 밖에 없는 비망직하지 않은 새 생활이 생겼던 것이다. 인답과 우녀의 수행은 마치 물 한그릇 떠놓고 혼례를 치른 신집살이와도 같았다.

바로 그런 행복이 다음 단계의 알수 없는 수행으로 바뀌어갈 판이었다. 인답의 마음 속에서는 이렇게 무욕도의 일을 아무런 의논도 준비도 없이 변화시키는 우녀의 속셈을 안타깝게 여길만 하였다.

하지만 우녀의 즉흥은 즉흥만이 아니었다. 어떤 지혜의 순간이 결정하는 장래의 확인인지도 몰랐다.

있는 것이다. 그 바다 일대의 깊은 곳에 용(龍)이라도 잠겨있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바다 위의 가축들이 저렇게 조용해진 것인지 모른다.

이런 여행으로 다음날 충분히 습기와 시장기에 익숙해진 아침나절에 서산 어리굴개펄 위쪽 모래밭에 당도할 수 있었다. 인답의 바람이 한층 더 무거웠다. 배에서 물 속을 질박질박 걸어서 물에 올라섰으니 일행의 물결이 후줄그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무욕도가 보이는 갈대밭 위 무덤가에 인답과 우녀가 떠날때 볼래 보았던 청상과부가 서 있었다. 우녀가 성큼 그녀에게 올라갔다.

무턱대고 말을 던졌다. "나는 저 무욕도 암자에서 공부를 하는 계집입니다"

그녀는 이리 우녀의 당돌하기까지 한 질문에 한동안 망연히 할 수 밖에 없었

남게서 날이날마다 소리치시니... 천정 오라비가 참다 참다 못하여 데려가려는 것을 아직 머뭇거리며 처지입니다"

보아하니 그녀는 단정한 소복차림과는 달리 입술의 핏기운이 없고 눈이 움푹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하루에 한끼 누른밥 천신 밖에 못하는 처지입니다"

"시어머니 강박 때문이겠지요. 언니? 우리와 함께 무욕도로 건너갑시다"

"..." 그녀는 좀 낯선 표정으로 멀리 바다에 떠 있는 무욕도를 바라보았다.

"저기 가... 나하고 세상 있어버리는 공부나 실컷 합시다. ... 실은 언니를 강원도 어디로 데려갈 남자가 있는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마나!"라고 소스라치게 놀

랐다. 핏기운 하나 없는 핏색한 얼굴에 부끄러움이 즉시 역력하게 드러났다.

"거기 가도 언니는 복될 수 없습니다. 언니는 천상 세상을 버리는 공부에 딱 맞으니까요!"

마치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우녀의 말은 그 말에서 도망갈 수 없게 단단히 그 풀을 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답을 불렀다. "언니 범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인답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짓고 이름을 고치려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尚)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움켜잡은 불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짐작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중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답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담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 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

거기에 인답과 배만득 곰보가 있고 기왕의 아랫쪽 갈대담자는 두 여자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새벽 예불과 아침 낮 공양은 암자에 모여서 하기로 되었다. 배만득의 이름은 만화(萬化), 곰보의 이름은 우선 남(南) 처사로 지어졌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다섯사람은 그러저러 무욕도에 건너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배는 무욕도의 해상을 배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녀는 섬에 건너오기에 앞서 남정네들이 술밭으로 들어간 사이 과부의 남편 무덤이 있는 부근에 그녀가 신은 미꾸리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그곳은 서너길의 바람이 저 있는 곳이어서 누가 보면 그 아래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꾸매질만 하였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답을 불렀다. "언니 범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인답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짓고 이름을 고치려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尚)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움켜잡은 불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짐작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중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답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담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 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

거기에 인답과 배만득 곰보가 있고 기왕의 아랫쪽 갈대담자는 두 여자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새벽 예불과 아침 낮 공양은 암자에 모여서 하기로 되었다. 배만득의 이름은 만화(萬化), 곰보의 이름은 우선 남(南) 처사로 지어졌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다섯사람은 그러저러 무욕도에 건너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배는 무욕도의 해상을 배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녀는 섬에 건너오기에 앞서 남정네들이 술밭으로 들어간 사이 과부의 남편 무덤이 있는 부근에 그녀가 신은 미꾸리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그곳은 서너길의 바람이 저 있는 곳이어서 누가 보면 그 아래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꾸매질만 하였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답을 불렀다. "언니 범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인답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짓고 이름을 고치려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尚)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움켜잡은 불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짐작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중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답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담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 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

거기에 인답과 배만득 곰보가 있고 기왕의 아랫쪽 갈대담자는 두 여자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새벽 예불과 아침 낮 공양은 암자에 모여서 하기로 되었다. 배만득의 이름은 만화(萬化), 곰보의 이름은 우선 남(南) 처사로 지어졌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다섯사람은 그러저러 무욕도에 건너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배는 무욕도의 해상을 배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녀는 섬에 건너오기에 앞서 남정네들이 술밭으로 들어간 사이 과부의 남편 무덤이 있는 부근에 그녀가 신은 미꾸리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그곳은 서너길의 바람이 저 있는 곳이어서 누가 보면 그 아래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꾸매질만 하였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답을 불렀다. "언니 범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인답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짓고 이름을 고치려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尚)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움켜잡은 불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짐작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중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답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담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 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

거기에 인답과 배만득 곰보가 있고 기왕의 아랫쪽 갈대담자는 두 여자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새벽 예불과 아침 낮 공양은 암자에 모여서 하기로 되었다. 배만득의 이름은 만화(萬化), 곰보의 이름은 우선 남(南) 처사로 지어졌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다섯사람은 그러저러 무욕도에 건너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배는 무욕도의 해상을 배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녀는 섬에 건너오기에 앞서 남정네들이 술밭으로 들어간 사이 과부의 남편 무덤이 있는 부근에 그녀가 신은 미꾸리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그곳은 서너길의 바람이 저 있는 곳이어서 누가 보면 그 아래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꾸매질만 하였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답을 불렀다. "언니 범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인답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짓고 이름을 고치려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尚)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움켜잡은 불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짐작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중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답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담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 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

거기에 인답과 배만득 곰보가 있고 기왕의 아랫쪽 갈대담자는 두 여자가 차지하기로 하였다.

새벽 예불과 아침 낮 공양은 암자에 모여서 하기로 되었다. 배만득의 이름은 만화(萬化), 곰보의 이름은 우선 남(南) 처사로 지어졌다.

우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 다섯사람은 그러저러 무욕도에 건너 올 수 있었다. 앞으로 배는 무욕도의 해상을 배어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녀는 섬에 건너오기에 앞서 남정네들이 술밭으로 들어간 사이 과부의 남편 무덤이 있는 부근에 그녀가 신은 미꾸리를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그곳은 서너길의 바람이 저 있는 곳이어서 누가 보면 그 아래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은 것으로 꾸매질만 하였다.

그러므로 청상과부는 버선발로 무욕도를 처음 밟은 것이다.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는 저 세상에서 죽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

"언니 이름 있어요?"

"난이(蘭伊)이어요. 청주한씨의 한난이어요"

"스님!"하고 우행자가 인답을 불렀다. "언니 범명(法名)을 지어주세요. 먼저..."

인답은 우녀가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름을 지으려면 짓고 이름을 고치려면 고쳐야 하였다. 이제 이 섬의 중심은 우행자가 차지한 것이었다.

"합두(合頭)라 불러보도록..."

합두라면 저 투자화상(投子和尚)의 시에 나오는 합두어(合頭語)에서 딴 것이었다. 본질이나 요점을 움켜잡은 불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그 언어를 쓴 사람을 짐작 못하게 잡아놓는 것이라는 경중을 울리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인답은 한번 이 섬에 건너 왔으니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삼은 것인가.

우녀가 말하였다. "언니의 이름은 이제 합두입니다. 합두행자"

그러나 당장 갈대담자가 비좁아 섬의 숲속을 헤치고 올라가는 저 위쪽에 지어 놓은 움막도 머물 곳이 되어야 하였다.